

세계의 결혼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결혼식 모습에 대해 장점이나 단점을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결혼식의 형식은, 과거에는 전통혼례식이라고 해서 신랑이 신부 집에 말을 타고 오는 것으로 행해졌습니다.

가끔은 신랑신부가 그때 처음 만나던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랑신부 서로의 마음이나 의견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집안끼리 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장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고 결혼식에 와서 술이나 음식을 먹고 마시며 매우 즐겁게 혼례식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현대 결혼식은 너무 신경쓰이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집은 결혼 비용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혼식장도 보통 하루에 2번 이상 결혼식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다른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과 뒤섞여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한편 결혼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도 하얀 봉투 속에 돈을 넣어 축하금으로써 냅니다. 그것도 하객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축하금을 갖고 오지 않고 그냥 마음만으로 축하할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좀 이상하거나 실례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는 반대로 연애결혼이 늘고있습니다. 지금은 집안내의 결합보다는 신랑신부의 의견이나 마음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각각의 장점이나 단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결혼식을 치룬다면 신랑신부는 물론, 모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